

##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2022. 11. 27.(일) [오후] 15:00 ~ 16: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2045년쯤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GI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계지능을 말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커즈와일은 오히려 인류의 이상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인간적이 되고 더 독특해지며 심지어는 신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즈와일에 따르면, 디지털 생활이야말로 우주 진화에서 이상적인 다음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인드를 멈춰 세우거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만 한다.

- 유희경, 『AI 곧 ‘인간 지능’ 능가』 재구성

## (나)



**마키아벨리**는 이전의 도덕철학자와 정치철학자를 비판하면서, 가상의 공화국이나 군주정이 아니라 군주가 실제로 활동하는 현실 세계에 관해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이익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실제 모습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을 유지하려면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이 신의를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만책에 능한 인물이었음에 주목했다. 그래서 선보다는 악이 우세한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보존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군주는 선과 악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 강정인과 정승현, 『동서양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재구성

(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석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 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웁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뒤했어. 독립은 우라진 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께짝 어깨에 멘 채 찾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중략]

신기료장수 코빼퐁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신기료장수: 헌 신을 꿰매어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도가(都家): 도매상

- 채만식, 『미스터 방』 중에서

## (라)

중국 전한(前漢)의 외척 왕망은 젊은 시절 검소한 생활과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로 칭송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면서 명망을 얻은 왕망은 불과 38세에 재상인 대사마가 되어 왕씨 일족을 대표하는 지위에 올랐다. 권력을 잡은 왕망은 기원후 8년에 '선양(禪讓)'이라는 유교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으로 어린 황제에게서 천자의 자리를 양보받고, 국호를 '신(新)'으로 바꿨다. 왕망의 꿈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을 유교 경전인 『주례』에서 찾았다. 관명, 지명 등을 모두 변경하였고, 대토지 소유 제한 및 토지 균등 분배, 노비 매매 금지 등의 개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추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대부분의 개혁 정책들이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방 호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폐지되었다. 기원후 23년, 호족 및 군 내부의 반란과 백성들의 봉기로 신나라는 멸망하고, 왕망도 반군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

- 최준채 외, 『고등학교 세계사』 재구성

## (마)

경제학은 18세기 말 그 학문이 출발할 때부터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이었다. 특히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 물질적 행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혹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연구했다. 한 나라의 '부'에 대한 연구인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뿐만 아니라, 그의 한 세대 후배들인 맬서스와 리카도도 그랬다. 경제학이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인 만큼, 경제학자들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아 안들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입각하지 않은 유토피아 사상가들과는 명백히 다르다. 위대한 경제학자 마셜의 말처럼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다.

- 김세직, 『모방과 창조』 재구성

## (바)

독재정권이 들어선 A국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기근이 지속되고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서 수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은 정치 권력 장악에 몰두하면서 기근과 질병 관리는 등한 시해 국민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단체들은 A국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권보호단체 W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보호단체 W는 A국 어린이의 기아 및 전염병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구호식량과 백신을 현지에 직접 보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A국 독재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단체가 A국에 입국하거나 구호 물품을 보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비판했던 구호단체들은 입국과 모든 구호 활동이 거부되었다. 결국 W는 국제단체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애덤 파이필드, 『휴머니스트 오블리주』 재구성

## [문제 1]

(가)~(라)에서 밑줄 친 인물을 ‘이상 지향’과 ‘현실 지향’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인물의 관점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 [문제 2]

아래 <보기>의 관점에서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 <보기>

Like oil and vinegar, ideals and reality never fully dissolve into one another and tend naturally to separate if left alone. To combine, they need to be regularly stirred up together if they are to make good vinaigrette. Also, like oil and vinegar, idealism and realism are better together. Each on their own is never enough. A passion for ideals alone will never make a good leader. She or he also needs a gritty realism to guide them as they try to bring influence to bear in very worldly situations which are usually not ideal at all.

\*vinaigrette: 비네그레트(식초에 갖가지 허브를 넣어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

\*\*gritty: 불쾌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 [문제 3]

(바)의 W가 처한 상황을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아래 <보기>에서 언급된 원칙을 준용하여 W의 결정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 <보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하고 특별한 요인들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1)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 (3) 침해의 최소성: 침해가 적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 (4)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으로 얻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